

윤리와 사상 정답

1	③	2	①	3	①	4	③	5	②
6	⑤	7	①	8	②	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8	⑤	19	⑤	20	④

해설

-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그림의 가상 대화에서 스승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세속적인 쾌락보다는 영혼의 수련을 중시하였다. 영혼의 수련이란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자신의 영혼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성이다.
- [출제의도] 공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임금의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지만 예(禮)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초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한국 불교 사상 이해하기**
같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의천은 내적인 공부와 외적인 공부를 같이 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점진적으로 나쁜 습기(習氣)를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노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즉, 억지로 함이 없이 자연의 도(道)에 따라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性)을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라고 보고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와 본성의 함양을 통해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보고 천리로서의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과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

- 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즉,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개화사상과 위정척사론 비교하기**
같은 개화사상가 신기선, 을은 위정척사론자 이항로이다. 신기선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하였다. 이항로는 성리학의 이념을 계승하여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정신에 입각한 위정척사론을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의 대상이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멸·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사상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인식한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걸맞은 덕을 갖추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에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고, 실천 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한 자율적 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자율적 존재로서 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지식은 상대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 얻어진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과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李滉), 을은 이이(李珣)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서로 발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같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 제시문의 사상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고 사단을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A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외물에 얽매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자연의 도(道)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흄과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흄, 을은 스피노자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의 구별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고,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도덕성의 기초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신 또는 자연을 인식함으로써 최상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벤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벤담이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며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중시하였다.
 -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고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이 도덕적 행위의 습관화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고, 참된 귀납법을 통해 이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단편적이어서 명백한 진리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 내기 위해서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발견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